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아산시 제4선거구)
탕정면·배방읍(휴대리·장재리)

책자형 선거공보

"이제는 시민을 위해 살아갈 시간"

깨끗하게!
유능하게!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손도신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아산시제4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 속 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력
2	국민의힘	손도신	남	1973.12.10. (52세)	(주)소명비제이씨 대표	충남산업대학교 (현청운대학교) 경영학과1년 제적 (1997.03~1997.11)	(전)제6,7회 지방선거 옹진군수 무소속 후보 (전)제8회 지방선거 충남도의회 아산시제5선거구 후보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 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788,000	352,000	406,000	없음	30,000	해군 (해병대) 병장 (만기전역)	-	-

3. 세금 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72,170	4,863 (26.01.26)	0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0000원(1997.08.09) -업무상과실치상 :벌금4000000원(2022.07.08)
후보자	15,767	637 (26.01.26)	0	
배우자	156,235	4,226 (23.10.18)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168	0	0	

4. 소명서

전과기록중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무인 스크린 골프장 운영 중 고객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는데, 부당한 보상 요구를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발생하였음.

이제는 시민을 위해 살아갈 시간!

출마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에게 저라는 상품을 써보라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4년 전에는 편의점 몇 군데와 메가커피 대부도점 하나 운영하며 집사람이 준 300한도의 카드 하나로 살았는데 낙선 후 그냥 남 걱정 말고 나만 잘 살아도 되는구나란 생각에 메가커피 10개를 오픈하며 도서지역 편의점 12개로 연 매출 100억에 이어 메가커피 10개로 연 매출 50억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를 위해 4년을 살면 연 매출 30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아산시민을 위해 살겠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가 마약이라 하지만 저는 당선된 적이 없기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진심을 저의 능력을 이번에 소비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아산시 제4선거구
– 탕정면, 배방읍(휴대리, 장재리) –

국민의힘 후보 기호2번 손도신 올림

	제5회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	제8회 지방선거	제9회 지방선거
더불어 민주당 상대후보	당선	당선	당선	당선	?
국민의힘 손도신	불출마	낙선	낙선	낙선	?

6대 핵심 공약 (실천형)

1 [행정] "불편은 48시간 컷!" – 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충남도–아산시 민원 연동 조례』 제정으로 접수부터 처리까지 48시간 내 완료하는 법적 근거 마련

도의원 역할 충남도 '적극행정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배방 · 탕정 전담 '생활불편 즉시 해결팀' 장비 및 인건비 지원

2 [교통] "기다림은 짧게, 이동은 빠르게!" – 광역 교통망 완성

GTX–C 아산 연장 구간의 도비 분담률 30% 이상 확보로 시 재정 부담 완화 및 조기 착공 지원

도의원 역할 충남 광역버스 노선 신설 심의 시 배방(장재 · 휴대) – 탕정 – 천안을 잇는 순환 노선 최우선 배치

3 [교육] "우리 아이 교육권, 도청에서 직접 챙깁니다!"

배방 · 탕정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예산 도 교육청에서 긴급 편성

도의원 역할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집중 투입

4 [생활] "주차는 편하게, 밤길은 안심하게!"

장재리 · 휴대리 상가 밀집 지역 '도심형 공영주차타워' 건립 (충남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활용)

도의원 역할 도비 지원 '스마트 안심 거리(CCTV/가로등)' 예산을 탕정 · 배방 취약 지역에 1순위 배정

5 [복지] "아이와 어르신이 모두 행복한 배방 · 탕정"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충남형 24시간 에듀케어 센터' 탕정 유치 및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도의원 역할 충남도 복지 예산을 끌어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복지 서비스 강화

6 [환경] "집 앞 수변 공원을 명품 휴식처로!"

곡교천 · 매곡천 수변 정비 사업에 충남도 환경 개선 기금 투입, 산책로 및 야간 조명 테마 파크 조성

도의원 역할 맹의석 시장 후보의 '수변도시' 공약을 도 정책 과제로 채택시켜 사업 속도 극대화

깨끗하게! 유능하게!

2 손도신

동아일보

[내 인생을 바꾼 순간]“편의점 바나나우유 먹어봤어?” 백령도에 난리가 났다

신용불량자에서 ‘편의점 갑부’로 일어선 손도신씨

2004년 봄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부둣가. 바다를 향해 걸터앉은 서른한 살 청년 손도신은 입술을 꽉 깨물며 생각했다.

‘그래, 여기 들어와 살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자동차 영업, 양말가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망했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땐 몸을 굴리며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다. 결혼을 하니 사정이 달라졌다.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두고 ‘카드 돌려 막기’로 버티며 빚더미를 깔고 앉아있을 순 없었다.

채권추심 전화를 받는 것도 지겨웠다. 청계천 복개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며 집을 나왔다. 아내와 딸은 충남 조치원 처가에 보냈다.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어찌하다 찾은 곳이 백령도. 1992년 공고를 졸업하고 자원입대한 해병대 자대가 있는 곳이었다.

전 재산은 현금 50만 원과 타고 온 중고 싼타페 한 대. 월세 35만 원짜리 방을 얻고 차에 기름을 넣으니 무일푼이 됐다. 부둣가로 나왔다. 각 잡힌 군복과 번쩍이는 군화를 신은 해병대 병사들이 면회 온 가족을 만나고 있었다.

‘나도 옛날엔 저랬었지. 그나저나 저 사람들은 섬 구경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기 차가 없으면 불편할 텐데…. 아, 그래. 저런 사람들에게 내 차를 빌려준다면….’

쭈뼛거리며 다가가 차를 빌려주고 8만 원을 받았다. 이후 내친김에 ‘자가용 영업’을 계속했다. 불법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치킨가게에 가 배달 일을 달라고 졸라 간신히 일감도 받았다. 아내에게 ‘막노동해 번 돈’이라며 생활비를 보냈다. 섬에 들어왔단 얘기는 한참 동안 꺼내지도 못했다.

백령도서 다시 시작한 ‘제2의 삶’

섬에선 마음이 편했다. 섬에 들어온 지 한 달 후 술에 취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사실 나 백령도야. 보고 싶다. 유빈이(딸)랑 같이 와라.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긴 카드빚 추심하는 사람들도 안 와.”

아내는 어이없어했다. 하지만 결국 100일 된 딸을 안고 백령도행 배에 올랐다. 딸을 품에 안은 그는 새로 구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가며 속삭였다.

“유빈아, 너는 절대로 고생 안 시킬 거야. 너는 교복 입는 좋은 학교 보내줄게, 꼭.”

서울에서 노란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을 봤을 때부터 해왔던 생각이었다.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소형차를 한 대 더 사 렌터카로 굴렸다. 차 두 대를 다 빌려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뚜벅이’ 신세. 부둣가와 치킨 가게, 집 사이를 매일 걸어 다녔다. 조금씩 돈을 벌었지만 빚은 줄지 않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인 것도 변함이 없었다.

입에 겨우 풀칠을 하며 살던 어느 날, 지인에게 공짜로 빌려줬던 차가 사고로 완전히 망가졌다. 너무 미안하다며 내미는 돈 중 1000만 원만 받았다. 이 기회에 장사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05년 10월, 백령도 진촌리에 ‘싱싱청과’란 과일가게를 열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다. 일부러 육지에서 과일 장사하는 선배를 찾아가 노하우를 배워 왔다. 장사가 잘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싱싱’이라고 불렀다.

아내는 배표를 파는 일자리를 얻었다. 육아는 그가 맡기로 했다. 장사하며 아기 밥 챙겨주고 기저귀 가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120만 원이 더 들어왔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장사를 키우고 싶어졌다. 2007년 봄, 배달 일을 그만두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치킨집을 냈다. 수입이 늘어나자 잠자고 있던 도전정신이 꿈틀거렸다. 아내에게 “이번엔 울릉도로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쪽 끝’ 섬에서 ‘동쪽’ 섬으로 진출해 보겠다는 일종의 객기였다. 아내가 말렸지만 그는 2008년 말 울릉도에서도 치킨집을 열었다.

준비 없는 도전의 결과는 썼다. 울릉도에서의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울릉도의 편의점이었다. ‘섬에도 편의점을 열 수 있구나.’ 눈이 번쩍 떠졌다. 편의점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백령도라도 좋은 자리가 있고 장사만 된다면 오케이란 답을 얻었다.

6개월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백령도로 돌아왔다. 여름 성수기 때는 바짝 치킨 장사에 열을 올리고 겨울엔 인천대교 제설작업을 하며 일당을 벌었다. 그러면서 편의점 개점 준비를 했다. 2010년 3월 백령도 해병부대 앞에 섬 역사상 최초의 편의점이 생겼다.

하루에 바나나맛 우유 700~800개 팔아

백령도에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려들었다. 깨끗한 가게 안엔 못 보던 물건이 즐비했다. 심지어 값도 전에 사먹던 것보다 쌌다. 전국의 물품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는 편의점 정책 덕에 물류비가 많이 드는 섬에서도 상품 가격이 육지와 같기 때문이었다.

최고 인기 상품은 '바나나맛 우유'. 처음에는 하루에 700~800개씩 팔려 나갔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다. 우유에 빨대를 꽂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인천 온 거 같아"란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금방 동이 났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엔 동네 아줌마들이 "편의점에 바나나맛 우유 들어왔다"며 서로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돌아서면 배고픈 젊은 장병들도 과자며 냉동식품이며 음료수 따위를 한 바구니씩 담아 갔다. 관광객들도 좋아했다. 가게에 뜨거운 물이 없어 컵라면을 사고도 못 먹는 일이 편의점이 생기고부터는 사라졌다. '싱싱네 편의점' 계산대는 쉴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딸린 방바닥에 지도를 폈다. 서해의 큰 섬에 모두 동그라미를 쳤다. 그때부터 공격적인 점포 확장이 시작됐다. 백령도 2호점과 인천 옹진군의 대청도, 덕적도, 신도에 연이어 편의점을 냈다. 기존 점포들의 수입이 늘어나니 새 가게를 내는 것이 점점 쉬워졌다.

남해로도 눈을 돌렸다. 노화도와 보길도(전남 완도군), 욕지도(경남 통영시), 추자도(제주시)까지 손을 뻗쳤다. 지난해 봄, 그는 다시 서해로 돌아와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2년간 수없이 배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전전하며 9개 섬에 편의점 10개를 열었다. 물론 그의 가게가 그 섬의 첫 편의점이었다. 편의점들은 문을 열자마자 섬 주민들의 '핫 플레이스'가 됐다. 하지만 그는 항상 섬 주민들과의 관계를 생각했다. 기존 가게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점포를 냈고, 계약을 마친 편의점을 아무 조건 없이 동네 가게 주인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몇몇 편의점은 권리금 없이 운영권을 섬 주민에게 넘겼다. 지금은 5개 섬에서 매장 6개를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 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지점' 운영을 섬 주민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제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점포가 '살아 있는지' 확인할 뿐이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다.

"섬에선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편의점 일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또 섬에는 착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 맡겨 놓아도 걱정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고요."

편의점들이 하나같이 다 잘됐다. 백령도 2호점은 편의점 체인 매출 상위 5% 점포에 들어갈 정도다. 50만 원만 들고 들어갔던 섬에서 그는 만 10년 만에 연 매출 50억 원을 올리는 편의점 사장님이 돼 있었다. 렌터카와 편의점 사업을 찾아낸 눈썰미와 도전정신, 몸을 사리지 않는 근면함, 실패에서 배운 노하우 덕이었다.

"꿈 잃지 말길… 내가 그랬듯"

재작년엔 집을 인천으로 옮겼다. 배편이 많아 여러 섬을 돌아다니기 편한 데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된 딸과의, 아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유빈이는 교복 입는 사립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는 빚도 다 갚았다.

"며칠 전에 신용카드를 만들러 갔더니 발급이 되더라고요. 신기했죠.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는데 이젠 아닌 거죠.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섬과 군(軍)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지난해엔 혹한기 훈련에 들어간 백령도 해병대원들을 위해 이동식 조리차량을 이용해 치킨 200마리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 일은 매년 할 생각이다. 지역 운동회 때에도 큰돈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섬 주민들에게도 보답하기 위한 길을 찾는 중이다.

"군 생활이 저를 섬으로 이끌었고, 군인들과 섬 주민들 덕에 먹고살 수 있게 됐어요. 그분들을 위해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 얘기를 들려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섬 청년들이 화제로 올랐을 땐 목소리가 커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희망 없이 살더라고요. 대학 간다며 섬을 떠나면서도 뚜렷한 목표 없이 다들 '남들 가니까 따라 간다'고만 하고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지만 떳떳하게, 그리고 항상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섬 젊은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령도=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아산시 제4선거구
탕정면·배방읍(휴대리·장재리)

전 CU CU편의점으로 연매출 100억(도서지역12개)

현 MEGA COFFEE 메가커피로 연매출 50억(10개점포)

- ✓ **충남 아산 출생**(1973)
- ✓ **해병대 702기 만기전역**
- ✓ **다둥이 아빠**(큰딸 23, 작은딸 13, 막내아들 12)
- ✓ **바르게살기 배방위원회 부회장**
- ✓ **뉴배방라이온스 전)사무국장**
- ✓ **염티초, 아산중, 천안공고 졸업**
- ✓ **대한적십자사 염치봉사회 회원**
- ✓ **해병대 아산전우회 전)사무국장**
- ✓ **세무서 등록 개인사업자만 45개 이상**
- ✓ **(주)소명비제이씨 대표이사**

전 bb.q **비비큐치킨**
백령도점/울릉도점/을왕리점

CU **CU편의점**
백령도1 · 2호점/대청도점/덕적도점
옹진신도점/강화교동도점/제주추자도점
통영욕지도점/완도노화도점/완도보길도점

emart everyday **이마트에브리데이** 영흥도점

EDIYA COFFEE **이디야커피** 영흥도점

전 **메가커피** 인천남동구청점

현 **MEGA COFFEE 메가커피**
대부도점/김포대로점
공주유구터미널점/백령도점
청주IC점/서천안IC점/
아산음봉산단점/아산구온양점
아산신정호점(일부매장 공동경영)

2 손도신